

라비던스 “패기로 새 출발…우리만의 색깔 보여드릴게요”

고영열 대표로 ‘네오트렌드 뮤직’ 신설
‘팬텀싱어3’ 이후 2년…“정체성 그 자체”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네 명이 빛을 가장 발할 방법이 뭐가 고민했어. 이 색깔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희, 라비던스죠.” ‘팬텀싱어3’에서 준우승을 거머쥐며 큰 사랑을 받은 크로스오버 그룹 ‘라비던스’가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다. 소리꾼 고영열을 대표로 베이스 김바울, 테너 존노, 뮤지컬 배우 황건하 네 명의 멤버가 뽀퐁 뽀퐁 직접 신생 레이블을 신설, 3월부터 새롭게 출발한다. 회사 이름은 ‘네오트렌드 뮤직’, ‘네오(NEO)’는 ‘뉴(NEW)=오리지(Origin)’를 뜻하며, 옛 것과 새것의 음악을 연결하며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이 고민 끝에 회사를 설립한 건 라비던스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서였다. ‘파격과 도전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클래식부터 팝페라, 국악, 월드뮤직 등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준 라비던스가 그동안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국악과 월드뮤직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광적인 음악으로 안 내하겠다’는 뜻의 라비던스만의 음악을 자유롭게 펼칠 예정이다.

최근 서울 한남동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만난 고영열은 “각자 개성이 강하고 활동 영역이 넓다 보니 우리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라비던스 활동을 위해 직접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고, 한번 해보자고 결심했다”며 “팬들이 더 듣고 싶어하는 것들, 한국적인 걸 더 많이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황건하도 “지난 2년을 함께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음악과 각자 어울리는 색깔을 슬슬 알아가고 있다. 우리가 뭘 잘하는지 알고,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어보려고 했다”며 “라비던스 팀을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 미니 앨범 발매…“멤버들 작사·작곡부터 한국적 색 담아”

그 첫걸음으로 오는 6월에 미니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다. 고영열이 총 프로듀서를 맡았고, 멤버들이 직접 기획·제작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한국적인 색깔이 담긴다. 멤버들이 함께 작사·작곡한 곡을 포함해 총 네 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김바울은 “지금까지 민요를 세 번 들려드렸는데, 경연 때라 주로 무겁고 웅장했다. 이번엔 살랑살랑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민요가 들어간다”며 “직접 가사를 써서 팬들에게 드리는 노래도 있고, 새로운 시도로 파격적인 노래도 하나 있다”고 전했다. 고영열도 “살짝 스포하자면 파격적인 노래는 판소리 한 대목이 네 명이 재밌게 구성해서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앨범을 낸 후에는 콘서트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콘서트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팬들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6월에는 토크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오는 12월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방송된 ‘팬텀싱어3’를 통해 ‘라비던스’라는 운명을 만난 지도 2년여가 흘렀다. 그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멤버들은 어느새 형제 같고,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라비던스는 마치 제 성(姓) 같아요. 라비던스 존노”로 불리죠. 라비던스가 없었으면 존노도 없었어. 그만큼 소중한 항상 함께하는 제 정체성이죠.”(존노) “제겐 그 무대가 정말 시작이었고, 행운이었어. 이제는 개개인의 활동도 라비던스를 대표하는 거죠.”(황건하)

서로 다른 음악을 해왔지만,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고영열은 “발성이 서로 다른데, 새로운 곡을 부를 때마다 배우는 게 있어서 그 재미가 쏠쏠하다. 개인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한데 뭉쳤을 때 그 빛이 더 발휘된다”고 했다. 김바울도 “네 명의 색이 달라서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 이전 없었던 안 될 존재들”이라며 “라비던스 이름 때문에 책임감이 더 생긴다”고 말했다.

아직 라비던스의 매력을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드라마틱한 음악 취향이라면 추천한다”고 했다. “평평 울고 싶을 때,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 들으면 딱이예요”(존노) “한 번도 안 들은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분은 없죠. 개성이 강해서 어찌 보면 유별할 수도 있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요. 개개인으로도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김바울)

◆뮤지컬·경연 프로그램·앨범 등 개인 활동도 활발…“영역 확장”

지난해에는 콘서트, 음악회 등 팀 활동은 물론 개인 활동도 활발히 이어왔다. 뮤지컬 ‘책 더 리퍼’로 뮤지컬에 데뷔한 김바울은 “감



사하게도 뮤지컬 첫 도전을 했고, 서울패션 위크 모델도 했다. 작년엔 발을 디디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더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싶다. 4월쯤 개인 앨범도 예정하고 있고, 오디션을 많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열은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인 JTBC ‘풍류대장’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그는 “소리꾼들 경연이다 보니 함께하고 싶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고,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싶었다”며 “올해엔 개인적으로 작업 영역을 넓혀가고 싶고, 새 회사에서 재밌게 라비던스의 음악을 잘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양한 콘서트 출연은 물론 최근 크로스오버 앨범을 내기도 한 존노는 “클래식 연주자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과반한 사랑을 받아 감사한 1년이었다”며 “더 발전하고 깊이 있는 연주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준비하고 있는 게 더 많다. 기대해 달라”

고 전했다.

이번에 복학한다는 막내 황건하는 상반기에 학업과 함께 녹음을 병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뮤지컬 첫 발걸음을 뒀고 라비던스 활동으로 많은 걸 배웠다”며 “노래나 무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반기에 작품을 하면 긴 시간 무대에 있을 것 같아 그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비던스 팀으로도 올해 더 다채로운 활동을 예고하며 설렘과 기대감을 전했다. 김바울은 “언제나 함께할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었기에 자주 뿔치 못해도 걱정 말고 조금 기다려주세요”라며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K-로맨스’ 세계를 홀리다…OTT 타고 훨훨

“가볍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로맨스물 수요 높아”



연출을 맡은 효과도 한몫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오징어게임 등 장르물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최근 공개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이야기로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전까지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로맨스물이 인기를 끌며 아이돌과 한류스타 중심 팬덤 문화가 형성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공격적인 투자로 제작비 규모가 큰 장르물에 편중하면서 로코 수요가 높아졌다. 지상파·종편이 OTT에 공정한 드라마 중 로맨스물 인기가 유독 높은 점이 반증됐다.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인기도 뜨겁다. 전날 일본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한국드라마 8편이 톱10에 들었다. 소년심판(2위)·지금 우리 학교는(8위)을 제외하면 모두 로맨스·청춘물이다. 박민영 주연 JTBC 주말극 ‘기상청 사람들 : 사내연애 잔혹사 편’과 사내맞선이 3·4위에 랭크됐다.

한류스타 손예진 주연작은 두 편이나 순위에 올랐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2019~2020)과 JTBC 수목극 ‘서른, 아홉’은 각각 5·6위를 차지했다.

손예진과 현빈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함께 출연한 사랑의 불시착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tvN 주말극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9위,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2020)는 10위다. 일본 내에서는 최신 작품 뿐만 아니라 2~3년 전 종방한 드라마에도 열광했다.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현지에서 4차 한류 붐이 일었고 오징어게임, 지옥 등 K-콘텐츠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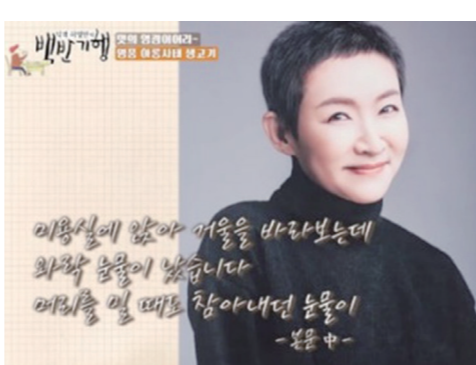
중국 내 한한령이 해제되면 K-콘텐츠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류스타 주연 로맨스물이 현지에서 잇따라 유행, 기대감을 높였다. 손예진·정해인 주연 JTBC 드라마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2018)는 지난 3일 중국 3대 OTT 아이치이에서 공개됐다. 2016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이후 처음이다. 공개되자마자 아이치이 드라마 인기차트 9위를 차지했으며 다음날 7위까지 올랐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방영’ 해시태그가 조회수 1억 2000만회를 넘으며 핫이슈 순위에도 올랐다.

‘K-로맨스’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그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지옥’(2021) ‘지금 우리 학교는’(2022) 등 제작 규모가 크고 무거운 장르물이 주목을 받았다. 최근엔 가볍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로맨스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타고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12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roller에 따르면, SBS TV 월화극 ‘사내맞선’은 전날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9위를 차지했다. 국내 드라마 중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특히 사내맞선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높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1위에 올랐다. 국내는 4위다.

사내맞선은 회사 사장 ‘강태무’(안호섭)와 맞선을 보게 된 직원 ‘신하리’(김세정)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다. 재벌 3세와 캔디형 여주인공의 뽀퐁 로맨틱 코미디(로코) 설정이지만, 설레는 장면과 웃음 요소를 적절히 섞어 입소문을 타고 있다. 1회 시청률 4.9%(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출발, 4회 만에 8.7까지 찍었다. 주연인 김세정은 아이돌그룹 ‘구구단’ 출신이지만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였고, 상대역인 안호섭과 케미스트리로 돋보였다. ‘수상한 파트너’(2017) ‘기름진 멜로’(2018) 등 로맨스물에 특화된 박선호 PD가

정애리 “난소암 투병 뒤 머리 더벅더벅 자라…지금은 완치”



배우 정애리가 난소암 투병에 대해 언급했다. 정애리는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방송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 “2016년엔 좀 아팠다. 난소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돌아봤다.

“여성암은 100% 머리가 빠진다. 항암(치료) 끝난 뒤 다시 더벅더벅 자란 머리를 정리해서 자른 날 ‘이 감사함을 기억하자’며 사진을 찍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항암치료를 견디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고기류 매일 200g이상씩 먹었다”고 했다.

다행히 정애리는 현재 완치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다 끝나고 지나갔다”고 했다.

또 정애리는 지금까지 기부도 꾸준히 했다. 그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과거엔 10년간 매달 1000만원씩을 냈다. 현재는 일을 그렇게까지 많이 못해서 그 정도는 내지 못한다”고 했다.

무용학도였던 정애리는 1978년 KBS 신인 탤런트 모집에 특선으로 데뷔 이후 안정된 연기력을 선보여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일품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선 정애리가 유년시절을 보낸 전남 영광의 다채로운 맛을 찾아 떠났다. 범성포 굴비 등을 맛본 정애리는 “고향을 맛볼 수 있었다”고 흡족해했다.

‘나 혼자 산다’, 오는 18일 결방…코로나19 확산 여파

출연진·스태프의 안전 고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오는 18일 결방된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두드러져 전 출연진과 스태프의

안전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결방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결방일에는 ‘나 혼자 산다 - 스페셜 신 캐릭터 열전’ 편이 대체 편성된다. ‘신 캐릭터 열전’에서는 배우 이주승, 차서원, 가수 코드 쿤스트 등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신규

무지개 회원들의 하이라이트 모음이 방송된다. 25일 방송될 ‘나 혼자 산다’에서는 만화가 기안84와 그룹 ‘워너1’ 멤버 송민호가 돌만의 힐링 캠프를 가고, 개그맨 이은지와 김해준이 봄맞이 인테리어를 하며 ‘찐찐 케미’가 보여줄 예정이다.

유재석 ‘플레이유’, 예고영상 공개…내일 첫 라이브

카카오TV 오리지널, ‘시청자 실시간 인터랙티브’ 예능

개그맨 겸 MC 유재석과 시청자의 실시간 인터랙티브 예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TV 오리지널 ‘플레이유’가 11일 라이브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창에 따라 로그인을 하면 게임 속 캐릭터처럼 깔끔히 차려입은 유재석이 나타난다.

이름 앞에 표기된 ‘레벨 1’은 이제 막 미션을 시작하는 초보 단계임을 나타낸다. 특히 유재석의 능력치는 힘·민첩성·지력·지행력 등 4가지 요소로 진행력은 이미 만렙 그래프를 찍어 웃음을 자아낸다.

는 것은 미션 장르와 미션이 펼쳐질 ‘맵’인 장소 선택 페이지 등 각각각색인 장르와 맵이 나타나 다채로운 장소에서 여러 미션이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장르와 장소를 모두 선택하자 이윽고 유재석이 수상하고 음산한 분위기의 맵에서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소환되더니, 낯선 환경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맵’에 빠진다.

제작진은 “‘플레이유’에서 유재석은 다양한 테마의 미션을 받아 현실 속의 맵 안에서 시청자 플레이어들의 전략과 제안을 바탕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주어진 시간 내에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오는 15일 오후 4시 첫 라이브란다.